중국 장쑤·현대농업 과학기술대회 난징서 개최

현대과학기술에 힘입어 생기 되찾은 장쑤 농업

중국 장쑤·현대농업 과학기술대회가 최근 난징에서 개최되었는바 해외 유명 농업대학교와 과학연구원 전문가, 대형 농업기업,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가하였다. 그중 해외 참석자는 350여 명, 유명 농업기업은 160여 개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왔다.

접목

국제 선진기술 접목

이스라엘의 농업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스마트 관개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이미 장쑤에 뿌리를 내렸다. 3년 전, 타이저우시(泰州)는 이스라엘 BF사, 안후이 랑쿤(朗坤)사와 AWL농업과학기술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자본, 기술, 서비스 등 면에서 협력하였다. 현재 타이저우는 국제 일류 농작물 본체 감지기술과 수비(水肥, 물과 비료) 일체화 통제기술 성과를 시설원예, 과일과 야채 재배, 수산 양식 등 분야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급

좋은 품종·새로운 패턴 시선 사로잡기

품종은 한 국가와 지역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대표한다. '장쑤의 좋은 품종' 특별 전시장에서 장쑤성의 8개 과학연구기관과 10개 기업은 59개 품종을 선보였다. 그중에는 유명한 '난징(南粳) 46', '난징 9108', '난징 5055'와 달콤한 찰옥수수 '쑤커눠 3번', 적맥(赤麥) 품종 '전마이(鎮麥) 12' 등이 포함되어 수많은 농가, 농장주, 농업 선두기업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쿤산시(昆山)는 쿤산 현대농업 특별 전시장에서 생태 쌀, 특색 과일 등 6개 종류의 농산물과 휴경 윤작, 종합 재배 등 12개의 새로운 기술과 패턴으로 '수향 전원과 농업 자연'의 면모를 선보였다.

쑤저우시 농업과학원의 둥밍후이(董明輝) 연구원에 의하면, 종합 재배 시범논 분야에서만 쿤산은 벼논 오리, 벼논 양어 등 7개 패턴을 선보여 농업 원가를 절약하고 오염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익을 증가하였다.

대회 시리즈 행사인 '장쑤성 특색 전원마을 건설전'은 수많은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중 아카데미 회원, 중국측량설계 대가의 지도를 받은 특색전원마을은 모두 31개로 장쑤는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를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난징장강도시건축설계회사의 타오타오(陶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목적은 동종업자의 작품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동력 부여

농촌 전자상거래 브랜드 우세 뚜렷

타오바오(톈마오) 플랫폼에서 성업 중에 있는 장쑤 매장은 무려 23만개에 도달하였다. 그중 농산물 매장은 15만 개로 100만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100%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고 난퉁 가정용 방직, 수양 화목, 쑤이닝 가구 등 일련의 유명 브랜드를 건설하였다. 장쑤 농촌은 전자상거래 패턴을 꾸준히 혁신하였다. 쑤이닝현은 '사지(沙集) 패턴' 업그레이드판을 출시하였는바 해당 현의 20개 진(鎮)과 구(區)에는 '4대 전자상거래 구역'이 형성되었다. 쑤첸시 쑤위구는 '1개 마을, 1개 브랜드, 1개 매장' 패턴을 건설해 '1개 마을서 1개 브랜드를 건설하고 1개 브랜드로 1개 매장을 이끌어 나가며, 1개 매장으로 한 곳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수양현은 농촌 전자 상거래 신용체계 건설을 모색하고 1,000만 위안의 화목 거래 신용 전문자금을 설치해 거래 분쟁 배상금으로 지불함으로써 화목 등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난퉁 퉁저우 가정용 방직타운은 마이크로 전자 상거래를 발전시켰는바 최근 2년간 거래액은 연간 2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中国江苏
新华报业传媒集团 主办
总第259期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xhhw@xhby.net
欲知更多新闻,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江网英文频道

물의 운치 문명도시 쑤첸(宿遷) 장쑤 사진전

쑤첸시는 최근 중국 30개 지구급 도시에서 1위로 제5회 '전국문명도시'에 선정되었다. 사진은 쑤첸시를 공중 촬영한 모습이다.

『130명 난징대학살 생존자 실록』, 최초로 출간

최근 저장인민출판사가 간행한 대형 사료사진집인 『130명 난징대학살 생존자 실록』이 난징 리지샹(利濟巷)위안소 유적지 진열관에서 최초로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저장인민출판사 사장은 난징 리지샹위안소 유적지 진열관에 『130명 난징대학살 생존자 실록』 100권을 기증하였다.

사진집은 난징대학살 생존자 130명의 구술 기록 20여만 자와 500점에 달하는 생존자의 사진과 중국 침략 일본군이 중국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료 사진을 수록함으로써 중국 침략 일본군의 인간성을 말살한 반인류 범죄를 폭로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책 속에 수록된 난징대학살 생존자는 현재 수십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자 리샤오팡(李曉方)은 촬영 애호가이고 제대 군인이다. 그는 여가 시간에 사비를 들여 생존자들을 방문하였는데 중국의 여러 도시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방문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난징대학살 역사를 기억하고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사진은 난징대학살 생존자가 사진집을 보는 모습.

창작오페라 「라베 일기」, 12월 13일 첫 공연 예정

장쑤의 창작오페라 「라베 일기」가 12월 13일 중국 국가추모일에 첫 공연을 한다.

「라베 일기」는 난징대학살 기간에 독일 기업인 욘 라베와 미국 목사 존 매기, 그리고 미국의 미니 보트린 여사 등이 펼친 인도주의적 난민구조활동을 그리고 있다. "라베 선생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착한 천성 때문에 재난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외국 우호인사들과 함께 국제안전지대를 설립하였습니다. '신성한 사명으로 사랑의 빛을 전하면서' 20여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였지요." 욘 라베 역을 맡은 한펑(韓蓬)에 의하면 저우커이(周可一) 작가는 대본을 창작하는 과정에 라베 등의 사적에 벅찬 감동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다. "안전지대 설립은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인종을 초월한 대의(大義)와 사랑은 라베로 하여금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오페라 「라베 일기」의 감독 엘리자이저·모신스키는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페라는 대본, 음악과 무대미술 등 면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였고 무대미술 설계에서 성벽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공연 마지막 부분에 무대 뒤편에서 광명을 상징하는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관중에게 인간성과 광명에 대한 신념을 심어준다. 「라베 일기」 작곡을 담당한 중앙음악대학교 탕젠핑(唐建平) 교수는 이것이 바로 작품이 담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였다.

양저우(揚州) 명가 작업실, 문화 전승 활성화

진강(秦腔) 대가 치아이윈(齊愛雲)은 최근 줄곧 양저우 양극단(揚劇團)에 머물렀다. 천리 밖의 치아이윈 대가를 양저우에 모셔온 것은 성 대회에 출전하는 젊은 배우들의 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신에게 하소연하다(打神告廟)」에서 등장하는 일곱 자에 달하는 긴 덧소매를 활용한 공연 솜씨는 치 대가의 특기이다. 한 건물에서 또 양극 명배우 거루이롄(葛瑞蓮)이 제자 왕위안(王媛)에게 「100세에 장수가 되다(百歲掛帥)」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등고추(登高秋)' 세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오전 시간이 다 날아갔다.

최근 2년간 양저우시는 문화 전승을 위해 명가 작업실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1년이 넘는 건설을 통해 작업실은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정청(李政成), 거루이롄 부부가 바로 대표적이다.

작업실 건설, 명가 전승의 '집' 마련

명가 작업실은 '1+N' 패턴으로 지방문화를 전승하는 사업이다. '1'은 문화명가 작업 본부를 가리키고 'N'은 학술, 예술, 기술 등에 따라 건설한 문화명가 작업실이다. 최초로 건설한 25개 명가 작업실은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고, 높은 도덕성과 예술성을 갖춘 명가를 선임한 후 지도 전문가 1~3명을 배치해 업계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 3~10명을 공동 육성하게 하였다.

명가 작업실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작업실에 대한 명가들의 열정은 '폭발'로 묘사할 수 있다.

거루이롄은 제자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양극 정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극 대가 리카이민(李開敏)의 곡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배들의 정수가 잊혀질 것입니다. 전승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지요!"

'양극 왕자' 리정청은 중국 전통극 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배우이다. 작년 명가 작업실을 설립한 후 양극 신예 5명을 제자로 두었다. 그는 레퍼토리 별로 AB주역 설치를 통해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 전반전에는 본인이 주역을 맡고 후반전에는 제자들이 주역을 맡는다.

젊은이 유치하는 것 문화 전승의 근본

작업실이 보급되면서 명가들은 영예와 아울러 긍정을 받았지만 그만큼 사명감도 컸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선을 학교에 돌렸고 교육 부서와 함께 '학교에서 무형문화재 전수하기' 등 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지방문화 전승이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

민요명가 작업실의 거훙(戈弘)과 샤펑(夏峰) 두 전문가는 학교에서 매우 좋은 '실험용 전답'을 찾게 되었다. 한장실험학교 민요동아리의 학생들은 명가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두 명가는 또 현대음악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양저우 민요를 창작하였다. 전지(剪紙) 대가 장시우팡(張秀芳), 평화(評話) 대가 양밍쿤(楊明坤)도 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 장시우팡 대가는 학교 미술교사까지 양성하고 있다.

"젊은이를 유치하면 전통문화 전승의 근본을 잡은 셈입니다." 고금(古琴) 작업실 전문가 마웨이헝(馬維衡)의 남풍금사(南風琴社)는 대학교 캠퍼스에 입주한 지 오래되었다.

대형 민족 곤무극(昆舞劇) 〈상아가 달로 날아가다(嫦娥奔月)〉가 최근 난징에서 공연되었다. 공연은 곤무의 독특한 형태, 리듬, 풍격으로 '바다 위에 밝은 달 떠올랐으니 세상 끝에서도 이 시간을 함께 하겠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공연 배우진은 난징예술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생활 속에서 무형문화재 생명력 발산

명가 작업실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문화적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조각칠기는 양주파 칠기를 대표한다. 작품 하나를 탄생시키는데 오랜 세월의 정밀하고 섬세한 조각이 필요하다. 컴퓨터 조각 등 선진기술이 갈수록 보급되는 오늘날에 이 전통 조각예술은 계승자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장라이시(張來喜)와 양중바오(楊忠寶) 두 전문가는 각자 칠기작업실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전승은 중국 국가 관련 부서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양저우 칠기옻칠기술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중국예술기금 2017년도 인재육성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양저우 조판인쇄는 세계 무형문화재이지만 양저우 시민이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국가급 전승인 천이스(陳義時)는 더욱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판인쇄 작업실이 소재하고 있는 광릉고적각인사(廣陵古籍刻印社)에서 제작한 수첩은 양저우 시민들로 하여금 조판인쇄의 매력을 다시 느끼게 하였다. 양저우 요소와 조판 요소를 겸비한 양저우 도시 수첩은 올해 국경절 연휴기간에 매진되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최초로 건설될 25개 문화명가 작업실 건설 주기는 3년이며 양저우시 재정은 매년 4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해준다.

장쑤성 긴급 뉴스

장쑤 관광지, 제1목적지에 합류

최근 장쑤성여유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관광지 백서〉가 발표한 10대 관광목적지에서 광둥과 장쑤는 제1목적지에 합류하였는바 관광객 유동량, 핵심 관광지 수, 관광 수입 등 지표를 평균하여 얻은 성급 목적지 지수(DPI)는 다른 성을 크게 앞질렀다.

백서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체험의 수요, 새로운 관광방식, 새로운 지방특색이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다. 현재 주변 관광, 파편화 관광, 현지 관광은 관광 행위의 주요 특징으로 되었다. 지우링허우(1990년대생)와 링링허우(2000년대생)를 대표로 하는 'Z세대'(Gen Zer)는 새로운 소비 주체가 되었다. 그중 18~24세가 가장 많아 25%를 차지한다. 관광객 중 신입사원의 관광 동력과 수요가 가장 강하며 워터파크, 아웃도어 탐험, 섬과 온천 등 자연경치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높다.

화제를 모았던 10대 관광 도시에서 난징시는 10위를 차지하였는데 편리한 교통시설과 다수의 5A, 4A 관광지가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장쑤 고전원림, 디지털박물관 확보

장쑤성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청, 장쑤성 전통건축 연구센터, 장쑤성 도시·농촌 발전 연구센터가 건설한 장쑤 고전원림 디지털박물관이 최근에 개통되었다. 앞으로 시청자들은 다큐멘터리 〈고궁에서 문화재를 복원하다〉를 시청하는 것처럼 장쑤 전통건축과 원림 기술을 시청할 수 있다.

장쑤 고전원림 디지털박물관은 현대 디지털화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사진, 동영상, 3차원 영상, 인터랙티브 등을 통해 장쑤 전통건축과 원림 조성공예 특징을 해설하고 전통건축과 고전원림의 구조, 조성방법과 문화적 의미를 보여준다.

징커우, 23억 위안으로 목재가공업 시범구 건설

최근 총 투자 23억 위안에 달하는 목재업 선진제조구 프로젝트가 신민저우(新民洲) 임항산업단지에서 착공되었다.

2016년 10월, 징커우구 정부는 중린(中林)그룹과 전략적 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중린그룹이 22.5㎡에 달하는 신민저우에 1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린(쩐장)생태산업타운 프로젝트를 공동 건설하기로 하였다. 현재 산업타운 건설에 3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5만 톤급 계선장 6개와 대형 퇴적장, 목재 초벌가공 1기 등 프로젝트를 건설함으로써 목재 수입 300만 ㎥와 판매수입 30억 위안 이상을 실현하였다. 산업타운의 건설 목표는 '항구·산업·타운'의 융합이다. '항구'는 현재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였고 이번에 새로 착공된 프로젝트는 '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져줄 전망이다.

사랑 때문에 난징에 남은 김주연 화가

김주연, 황거 부부의 결혼 10주년 기념사진

김주연 화가와 난징 푸바오스(傅抱石)기념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소란스러운 도시를 벗어난 작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집이었다. 소박한 응접실에서 김 화가와 그녀의 남편 황거(黃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화가는 16년 전 배움의 길을 찾아 한국 대구에서 난징으로 유학 왔다. 지금은 다문화 연구자와 직업 화가로 거듭났다. 이곳에서 그녀는 예술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푸바오스기념관 부관장인 황거 화가였다. 두사람은 중·한회화교류사를 같이 연구하며 중국 전통회화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화가는 한국에서 중국화를 전공했다. "중국 전통회화, 특히 문인들이 그린 그림은 한국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칭화대에서 중국어를 연수하였으며 중앙미술대학교 중국화학과 산수화전공 대학원에 순조롭게 진학하였다.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깜짝 놀랄만한 결단을 보여줬는데 자퇴해서 난징예술대 디자인학과 대학원 시험을 다시 본 것이다. "난징을 좋아합니다. 과거 난징을 관광한 적이 있는데 이곳이 저한테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난징예술대에서 그녀는 칠화를 배웠다. 또 유명 학자 저우지인(周積寅) 선생의 문하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중국과 한국에서 '아집도(雅集圖)' 소재의 역사적 연원과 전파를 연구하였다. 이때 지도교수 저우지인 선생은 두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 또한 중국 전통회화에 대한 황거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에 매료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그들은 학생 기숙사에서 살면서 매일 학교 식당밥을 먹었다.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둥난대학교 박사후 과정까지 밟았다. "예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 화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부인이 난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위탁 교육생이었던 남편은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난징에 남았다.

"난징에 처음 왔을 때 한커우서로에서 살았고 이곳의 나무와 인문환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김 화가가 말했다. 인연이 닿으려고 했는지 남편이 근무하는 푸바오스기념관이 한커우서로에 위치했고 맞은 편은 난징사범대였다. 현재 그들은 기념관에서 가까운 한커우서로에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연구하고 그림 그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며 가끔 사생하러 나가기도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저술한 『중화 바람에 서서히 물들다—중·한 회화 교류의 역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중·한 회화 교류사를 전면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며 중국 문화부, 중국 박사후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업계 전문가의 인정까지 받았다. 두 사람이 같이 그린 산수화는 중국 산수의 필묵과 한국 회화의 색채를 융합해 중묵중색(重墨重色)의 신선한 화풍을 형성하였는바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다.

김 화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기자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난징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이 도시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중·한 양국 문화 교류는 역사가 매우 길다고 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중·한 양국 회화 교류전을 기획하였고 심지어 한국민간악단의 난징 공연까지 기획하였다. 12월 초 그녀의 작품은 홍콩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 "난징에 와서 필묵과 인연 맺은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글 쓰고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필묵이야말로 저희에게 예술의 전당입니다." '주련벽합(珠聯璧合 : 구슬과 옥의 만남)'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렸다. 장훼이칭·張會清 글/사진

장쑤의 한인사회